

法水寺의 마하비로자나 三尊佛

文 明 大

慶北大 博物館의 정원에 들어서면 부도와 부도 사이의 중간쯤해서 무참하게 부서진 石物들이 눈을 끈다. “이건 너무 하구나” 하는 느낌은 누구나 다 가질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기가 일쑤이기도 하다. 그러나 조금 留意하여 부서진 石物들을 배움하고 흩어진 骨格들을 모아 본다면 그렇게 무심히 지나칠 수만 없는 몇가지 중대한 사실들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彫刻史의 문제에서부터 깊게는 佛敎史의 문제까지 간과할 수 없는 사실들을 그가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石物들은 台座 위에 있는 마하비로자나佛과 양 옆으로 사자와 코끼리 위에 앉은 文珠와 普賢菩薩인 비로자나 三尊佛이다. 원래 伽倻山 法水寺址 (慶北星州郡 白雲洞) 에 있었던 것으로 1965년에 옮겨놓은 것이다⁽¹⁾. 山 東南쪽 중턱쯤되는 高原地帶에 위치하고 있는 이 寺址는 멀리로 大伽倻의 古都인 高雲을 眺望 할 수 있고 바로 뒷산을 넘으면 名刹 海印寺가 자리 잡고 있다. 寺域은 비록 高原地帶이긴 하지만 굉장히 넓다. 지금은 國民學校가 있는 큰 마을이 들어서고 논 밭이 되고 나무들이 무성하여 언뜻 구별할 수 없지만 幢干支柱에서부터 金堂址 楚石 石砌 庵子址에 이르기까지 모든 遺址의 散在하는 範圍로 볼 때는 정말 대단한 규모이다.

星州邑誌인 京山誌 佛亭條⁽²⁾에

「九金堂 八鐘閣 等 무려 千間이나 되며 石佛 石塔 石柱 石砌이 온 산에 가득차 있고 사방의 암자터가 100여개나 되는데 그 가운데를 산촌 사람들이 경작하고 그 주위로 海松들이 무성하다……」라고 한 말은 별로 과장됨이 없는 적절한 表現이라 하겠다. 寺域의 한 가운데 쯤에서 신라의 웅장한 축석이 쌓여진 金堂址가 있고 여기에는 아직도 石塔 石燈台石 瓦當이 散在하고 있다.

이 곳에서 溪流를 따라 20m 쯤 올라가면 30여년 전에 세웠다가 수년 전에 파괴되어 버린 미륵당지(彌勒堂址)가 있다. 石佛들은 바로 이자리에 있었다.

法水寺가 언제 開創되어 어느때 廢寺되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논의는 단편적이긴 하나 두어번 있었고 古記錄 또한 남아 있다. 수년 전에 尹容鎮教授는 「法水寺址와 遺物」

(1) 태풍과 화재로 극심히 파괴된 후에 나날의 풍화와 마을 사람들의 무심한 손길로 몇년 후에는 흙으로 化해버릴 위험이 농후하여 數次 옮기려 했으나 번번히 고지식한 마을 사람들의 妨害로 어쩔 수 없이 방치해 두었다가 1965년에야 文敎部의 指示로 간신히 옮길 수 있었다. 무심히 放置 또는 破壞하면서 막상 잘 保存하려면 한사코 방해하는 마음 가짐은 하루 빨리 是正되어야 할 「癘」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절감한다.

(2) 京山邑誌 星州府(溇谷 포함)의 邑誌로서 名儒 張顯光 등이 1635年(仁祖 13年)에 着手하여 司諫 李元楨이 1677年(肅宗 3年)에 完刊하였다.

이라는 간략한 踏查報告⁽³⁾에서 京山誌의 記錄을 들면서 石造物 및 瓦當의 樣式으로 보아 그 開闢을 新羅統一期前半이라 추정하였다. 그에 앞서 故 又玄 高裕燮先生은 「韓國塔婆의 研究各論草稿」에서

「東國輿地勝覽에 法水寺를 들고 있으므로 보아 朝鮮朝의 中宗 25年(1530년)까지는 아직 엄존하고 있었을 것이다. 法水寺의 來歷을 알 수 있는 것으로는 陝川郡 伽倻面 舊原里 所在의 元景和尚



三尊現像

樂眞의 碑文 外에는 없는 듯 하다……」하면서 創立年記 等を 밝힐 도리가 없다고 하였다.

大正六年度古蹟調查報告에도 약간 언급되어 있고 古蹟圖譜에는 金堂址 石塔 瓦堂 等の 寫眞이 실려 있다.

李朝時의 記錄으로는 1677년에 完刊된 京山邑誌에 앞서 든 例文이 실려 있고 1530년에 된 東國輿地勝覽⁽⁴⁾에도 「法水寺在伽倻山南」이라 記錄되어 있다.

高麗朝에는 元景王師의 碑⁽⁶⁾에 高麗國大華嚴 第四代王師 歸法 法水兩寺住持」라 題하고 肅宗이 法水寺를 元景王寺의 香火의 地로 삼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들 언급은 이미 지적된 적이 있어 麗代까지는 이 寺刹이 開闢되어 있었음을 記錄으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以前 新羅에 벌써 存在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文獻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수년전 三國遺事를 뒤적이다가 우연히 「法水海印寺」라는 記錄을 발견하였다. 卽 三國遺事 金傳大王條에

「太子는 개골산에 들어가 숨어 버리고…… 季王子는 華嚴宗의 僧侶가 되어 후에 法水 海印寺에 住하였다」

라는 記錄이다. 又玄先生이 元景和尚碑文外에 더 밝힐 수 없다고 한 것이다. 齊藤忠氏가 新羅寺院을 망라하였을 때⁽⁸⁾ 法水寺를 빠뜨렸던 점 等等은 「法水海印寺」라 表現하였으므로 名利 海印寺를 浮刻시켜 받아들이고 「法水」를 寺로 보지 않고 形容詞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를 일이다.

첫째 文脈上으로도 「法水寺 내지 海印寺」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둘째 두 寺刹이 같은

(3) 法水寺址와 遺物 「古文化1輯」 P. 40

(4) 黃壽永編 「韓國塔婆各論草稿」 P. 164 高裕燮遺著 其三 1967

(5) 東國輿地勝覽 卷之 三十八 星州 佛宇條

(6) 朝鮮金石總覽 (上) 316頁 參照

(7) 三國遺事 卷第三 金傳大王條 「太子哭泣辭王 徑往皆骨山……季子祝髮 隸華嚴 爲浮圖 名梵空 後住法水海印寺云」

(8) 齊藤忠 「朝鮮古代文化의 研究」 P. 183에서 海印寺 가까이 法水寺가 있다고만 말하고 있을 뿐 三國史記, 三國遺事에서 밝혀한 新羅寺址에서는 빠뜨리고 있다.

산 등성이 하나 넘어 있어 季王子가 왕래하면서 살기에 꼭 알맞는 곳이며, 세째 高麗時의 元景王師가 華嚴宗 第四代 王師로서 法水寺의 住持를 역임하였으며 華嚴宗 僧이던 敬順王의 季王子가 거기에 住했던 점으로 보아 法水寺가 華嚴宗 寺刹이었을 것은 당연할 것이니 같은 華嚴宗 寺刹이라는 점에서 도 부합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三國遺事의 法水寺는 곧 伽倻山의 法水寺가 될 것은 분명하다.

이상의 기록만을 통해서도 이 法水寺는 羅末에는 벌써 창건되어 있었고 高麗時에는 왕이 자기 師의 香火의 地로 삼을 만큼 번창하고 있었으며 적어도 1530년 까지는 存在하고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런만큼 좀더 追求하여 본다면 瓶寺와 廢寺의 時期를 훨씬 좁혀 볼 수가 있을 것이다.

羅末麗初에 王子가 住하였을 정도라면 이 寺刹은 그 前에 벌써 創建되었을 것이며 法水海印寺라 하여 法水寺를 먼저 들고 있는 것은 그의 住한 順序라 생각할 수 있으나 적어도 法水寺가 海印寺만큼은 오래고 大刹이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三國史記에 海印寺만을 들고 있는 것은 海印寺가 王의 所刹이었기 때문인지 大刹이거나 時間的인 差라는 점과는 하등 상관없을 것이다. 文獻의으로는 더 이상 밝힐 수 없다. 그러나 海印寺와 거의 같은 때쯤 해서 創建되었다고 인정되는 것은 뒤 다음 章에서도 언급하겠거니와 塔 瓦當과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佛像 等の 樣式에서도 볼 수 있다. 法水寺에서 出土되는 모든 遺物들을 살펴보면 9세기 이전으로 훨씬 올라가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그렇다고 初創時의 것으로 9세기 중엽 이후로 내려간다고 認定되는 것 또한 없다. 말하자면 9세기 전기(前期),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830년을 中心해서 前後 2·30년을 上·下限으로 하여 開創되었다고 보면 별로 大差가 없을 것이다.

廢寺에 대해서는 瓶寺에 대해서 좀더 上·下限의 年代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1530년에 된 東國輿地勝覽에 法水寺가 存在해 있다고 하였는데 1677년에 完刊 (1635년에 着手) 된 京山誌에는 이미 「언제 廢寺되었는지 알 수 없고……전하는 말에 무려 千間이나 되는 寺刹이었다」……고 한 것을 보면 수십년 이전 그렇다고 아주 멀리 올라가지 않는 어느 때쯤에 폐사되었을 것이고 그것은 아마 壬亂中의 어느 해로 십분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가운데 本尊像은 파손이 심한데 높이(身上)가 76cm, 그러니까 떨어진 머리(32cm)와 합치면 108cm가 되는 셈이다. 머리가 달아나 버리고 가슴으로 해서 손까지 모두 떨어졌으며 더욱 무릎 부분은 전연 없어졌다. 떨어져 있는 머리조차 그나마 육체는 없어진 채 後頭部만 남아 있고 얼굴 부분은 완전히 부서졌는지 조각 하나 찾아 볼 수 없다. 남아 있는 머리에는 큼직한 螺髮이듬성하게 솟아 있고 귀는 아주 길게 내려져 있다. 목을 이어 보면 三道는 있었던 듯하며 어깨는 가늘고 좁아졌다. 손은 잘리웠지만 팔이 올라가는 것으로 다 떨어진 손—특히 사실적이다—을 이어보면 비로자나의 智拳印이라는 것은 쉽사리 알 수 있다. 「미륵당이 부서지기 전에 —佛像이 무참히 파괴된 것은 미륵당이 파괴되었을 때라 한다. 부처님의 손은 가슴에다 아래 위로 대고 있었다」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더 의심할 여지도 없어진다. 通肩의 옷은 平行階段式 衣文을 흘리고 있는데 끝을 제대로 매끈하게 구사하고 있다. 그런데 등어리 부분이 얇은 板으로 떨어져 나갔다. 떨어진 것은 고스란히 갔다 불일 수도 있으나 그것도 한 가운데가 갈라져 두 동강이 나버렸다. 가운데서 표현된 제단식 衣紋이나 그 옆의 「지그자그」紋은 佛像을 조아낸 佛匠의 비범한 솜씨를 짐작케도 하지만 한편

으로 時代를 말해 주는 形式化가 엇보인다. 像을 받치고 있는 臺座(全高 82cm)는 現在 3段인데 上段의 仰蓮은 八葉의 重瓣蓮華文으로 지금은 五葉밖에 없다. 가운데의 中臺石은 八角으로 各面에 八部象을 彫刻했음이 분명한 듯 하나 마멸이 극심하다. 그래서 지금은 仰伏蓮과 맞지 않아 제 것이 아닌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 아래의 覆蓮은 複瓣蓮花文으로 길이에 비해서 瓣이 넓어지고 있다. 左右脇侍像들은 너무 무참히 파손되어



사 자 상

어느 것이 어느 쪽의 것인지 도대체 구별할 수가 없다. 그래도 한 像은 머리 양팔 아랫도리가 없어진 채로 형태나마 남아 있다. 상가티를 오른쪽으로 홀리고 있으며 왼 손을 가슴에 대고 있다. 다른 한 像은 허리 부분만 잔실히 남아 있으나 그것도 가운데가 갈라진 두동강이다. 어느 쪽의 것인지는 모르지만 눈 코 입 등이 마멸되어 버린 菩薩頭가 따로 덩굴고 있다. 그러나 보관을 쓴 모양이나 얼굴을 처리한 솜씨만으로도 그렇게 훌훌히 지나쳐 버릴 菩薩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菩薩像들을 받치고 있던 사자와 코끼리像이 있다. 제자리를 알 수 없는 보살들과는 달리 왼쪽의 사자, 오른쪽의 코끼리라는 것은 말 할 필요조차 없으며 따라서 이들 두 보살이 文殊와 普賢이라는 것도 명백해진다.

獅子像은 眼象이 새겨진 二段長方形臺石위에 한장의 板石과 붙은 돌로 조각하였는데 엷드린 姿勢를 취하고 있다. 머리 앞쪽은 전연 없어졌지만 그 다음 등어리 부분의 얼마간과 엉덩이는 떨어져 있으나 붙일 수 있다. 등어리는 편편하게 하여 보살 臺座를 없어 놓기에 알맞게끔 했다. 그 주위로 10葉의 蓮花文과 방석일 듯한 卍形紋, 花文, 띠 등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다. 앞 다리는 굽혀 배 한 가운데로 왔으나 발의 세부는 표현되지 않았고 뒷 발은 발가락을 길게 표시하고 발톱도 길게 꼬부렸다. 살찐 엉덩이에서 내려가는 꼬리는 옆으로 철썩 붙여 실감을 자아낸다. 이것은 배를 臺座에 바싹 붙인 자세의 살찐 모습에서부터 스프링스 같은 발 모양과 화려한 장식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솜씨와 조화되면서도 거기에 비하면 훨씬 사실적이어서 이 刻匠이 가장 力點을 두었고 또 得意한 곳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똑같은 臺座에 엷드린 코끼리는 얼굴이 떨어져어도 다행히 코 끝은 남아 있다. 오른쪽으로 휘어진 이 코야 말로 코끼리의 생명이니만치 세심하게 배려했던 흔적이 역력하다. 앞 발을 앞으로 낸 것이나 목주름을 잡은 이외 아무런 장식도 마련치 않은 점 등은 사자상과 다른데 화려하고 기교에 찬 사자와 소박하면서도 힘찬 코끼리는 마치 佛國寺의 多寶와 釋迦塔의 技法과 相通하는 흥미있는 對稱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技巧은 이 像에서 등어리를 좁게 하여 그 위에 엷었음이 분명한 蓮臺石의 下面 흥과 꼭 맞게 끼웠고 사자상은 등어리를 넓게 하고 다시 覆蓮花文을 조각하여 座台石의 仰蓮과 조화되도록 한 수법에서도 볼 수 있다. 돌덩이를 마음대로 구사하여 이렇게 得意의 像을 나타내 준 이 刻匠에게 최대급의 갈채를 보내고 싶어진다. 너무 세련되어 生動하는 野性的인 멋이 없어진 것은 그 時代의 반영이라 할 것이며 이 刻匠의 솜씨로써 어쩔 수 없었던 모양이다.

그러면 이 佛像이 位置하는 정확한 연대는 대체 어느 때 쯤일까. 여러가지 여건으로 보아 法水寺의 剎建과 同時의 것임에는 틀림없는 듯 하다. 塔이며 瓦當이며 또 初期의 것들이라 생각되는 모든 遺物과 이 佛像들과는 아주 비슷한 樣式系列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法水寺의 初剎을 대개 820년에서 2·30년間을 上下限으로 잡아보았다. 그것은 여러 面의 검토에서 정해진 것이지만 이 佛像들의 手法에서 특히 파악된 점이기도 하다. 우선 法水寺와 이들 像을 같은 時期로 잡아두고 그 연대를 좀 더 분명히 밝혀 보기로 하겠다.

첫째, 頭部이다. 지금 얼굴이 온통 깨어지고 肉髻도 구별할 수 없어 애매하긴 하지만 성글은 螺髮이라든가 타원형의 힘없는 모습 그리고 길쭉한 귀는 8세기 佛의 傳統에서 보다 進展하고 있다. 8세기 末 내지 9세기 前期 佛이라는 것은 이것으로도 대개 짐작할 수 있으나 만약에 얼굴이 남아 있었다면 연대 추정은 훨씬 쉬웠을 것이다.

둘째, 몸의 비율이다. 어깨의 폭이 현저히 좁아졌을 뿐더러 몸은 훨씬 가늘어지고 있다. 당당한 자세라든가 강건한 어깨를 보이는 8세기 佛과는 뚜렷이 구별된다. 같은 마하비로자나佛인 750년 경의 佛國寺佛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865년의 到彼岸寺佛과는 이 점에서 많이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定型化된 모습이 아니어서 아직까지 거기에 완전히 접근하고 있지는 않다.

셋째, 衣褶이다. 이 佛像에서 보는 따위의 平行階段式 衣褶은 9世紀 佛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다. 前代의 石窟庵本尊이나 佛國寺 비로자나佛에서와 같은 凸形의 자연스러운 衣紋이 아니라 規格化(形式)된 樣式이다. 이런 衣褶은 勿論 到彼岸寺佛에서 그 絶頂을 보이다가 高麗로 넘어 가서는 線刻平行式으로 變해지는 것이지만 到彼岸寺佛과 같은 全身의 規格化는 아니고 856년의 寶林寺 비로자나佛 또는 9세기 중엽 경의 桐華寺 비로자나佛에서와 같은 수법이 어깨 등에서 엿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樣式은 방어산마애불(801년)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 탄력성이 감소된 얼굴, 좁아진 어깨와 연약해진 신체, 線刻이긴 하지만 形式化된 平行衣褶의 이 마애불은 만약에 衣褶을 段狀密集衣紋으로 바꾸어 놓는다면 이 佛像과 아주 접근될 것이다. 이 보다 수십년 정도 늦으리라 생각되는 9세기 중엽 경의 實相寺 鐵造如來座像에서도 머리, 신체 一立像의 姿勢에서 가지는 보다 당당한 가슴을 감안한다면 一衣褶 어느 것 할 것 없이 이 것과 相通하는 수법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모든 수법은 등어리에 나타나는 지그 자그 또는 V階段式 衣褶과 함께 820년 경이라 認定되는 芳皇寺石佛群⁽⁹⁾ 특히 在銘如來座像이나 大日如來像들과 直結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 法水寺佛像은 넓게 잡아 820년에서 2·30년의 上下限을 두고 造成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더 정확히 말한다면 820년 쯤의 어느 해로 看做해도 별로 大差는 없지 않을까.

이것은 像 자체 외에도 台座나 左右補處의 樣式을 통해서도 立證된다. 台座는 9세기 佛, 특히 같은 비로자나佛 系統에서 流行된 上仰蓮 中八角, 下覆蓮에 三段台座이다. 上仰蓮이 重瓣이고 下覆蓮이 複瓣이라는 점에서는 到彼岸寺, 桐華寺, 慶北大 비로자나佛(寶物235)등과 同一하지만 細部 意匠에서는 달라지고 있다. 到彼岸寺의 仰蓮은 길쭉한 瓣에 등과 端이 날카로우며, 上·下葉 사이로 段을 만들지 않았던 소위 노사나 千葉蓮衣를 상징한데 비해 法水寺 佛의 仰蓮은 瓣이 둥글고 부드러운 上下蓮을 뚜렷이 區分짓고 있다. 覆蓮은 前者는 기다란 瓣에 귀꽃이 아주 발달했는데 後者는 넓게 퍼진 瓣으로 端도 매우 부드럽다. 이 到彼岸寺佛의 것보다는 조금 앞섰으리라 推定되는 桐華寺

(9) 金元龍 「芬皇寺石佛群」에서는 8세기 末 내지 9세기 初로 보고 있다.

비로자나佛의 台座가 훨씬 가깝다. 上臺의 段을 만든 重辨, 그렇게 날카롭지 않은 辨 속의 花文, 下臺의 넓게 퍼진 複辨蓮花 등은 거의 비슷하나 그래도 辨端이 꽤 날카롭다든가 너무 세련되고 장식화된 점 등은 역시 法水寺手法보다 진전되었음이 틀림없다. 法水寺의 臺座에도 形化式된 장식적 수법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前代의 부드럽고도 소박한 技法이 많이 남아 있을 뿐더러, 量感도 풍부하여 보다 앞선 時期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보살상들의 姿勢 또는 코끼리의 약동하는 포즈를 보면 이 佛像이 서야 할 時代는 좀더 분명하여질 것이다.



코끼리상

文殊와 普賢菩薩을 脇侍로 한 마하비로자나 三尊佛像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된 例이다. 더우기 脇侍들이 사자와 코끼리를 탄 像이라는 점에서 희귀한 일이다. 彫刻史的인 意味에서도 매우 흥미있는 것이지만 宗教史에서는 특히 重要な 問題가 아닐 수 없다.

비로자나佛이라면 대부분 法身佛이라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 眞理 그 自體라는 말이다. 華嚴經의 비로자나佛 思想에서 발달되어 密敎에서는 主尊佛로 昇格, 이름도 마하(大)를 덧붙여 마하비로자나佛이라 하여 크게 盛行하였다. 우리나라 現存佛像의 두, 셋째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에 대한 信仰이 얼마나 두터웠나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密敎가 傳來된 정확한 年代는 알 수 없지만 惠通國師의 歸國과 同時代인 720년 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그 前에도 明郎 密本 같은 密敎 名僧들이 密敎를 流布시켰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雜密이요, 순수한 밀교는 중국보다 약간 후대인 惠通國師 등이 中國의 傳來密僧인 善無畏, 金剛智 等에게 法을 받고 온 이후라는 말이다. 이리하여 統一期로부터 發達되어온 “鎖護國家的인” 雜密敎는 純密의 傳來와 함께 8세기 후엽부터 政治的 社會的 混亂에 편승하여 “攘災與樂”을 주장하면서 9세기의 新羅社會를 풍미하였다.

密敎라고 하지만 行動을 내세우는 金剛界와 理論을 重視하는 胎藏界의 두 派가 있다. 金剛界는 金剛頂經, 胎藏界는 大日經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主尊의 모습도 다르다. 金剛界는 智拳印, 胎藏界는 法界定印을 하고 있다. 우리의 이 마하비로자나佛은 金剛界의 主尊임은 그 印相으로 明白해졌다. 金剛界密敎의 번성은 惠日大師의 歸國(800년경) 後인 8세기 초로 본다면 法水寺 佛像의 時代的인 位置와도 적합하고 있다. 9세기 佛 가운데 많은 수가 金剛界 비로자나佛이며 國寶, 寶物로 지정된 佛만 하더라도 상당수(國寶만 7點으로 推定)가 되는 데 비하여 胎藏界 비로자나佛은 극히 적을 뿐더러 지정물은 거의 없다. 이것은 「鎖護國家 攘災與樂」의 思想을 理論的으로 밝히는 것 보다 行動으로 實踐하려던 金剛界 密敎가 당시의 혼란된 社會에는 훨씬 더 어필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비로자나佛과 脇侍像, 文殊, 普賢이라 하면 서로 연락이 얼른 가지 않는다. 文殊와 普賢은 석가무니佛의 脇侍로서 가장 잘 알려진 보살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三尊像은 화엄경에서 특히 강조되었던 것이며 마하비로자나佛은 화엄경에서 누누

히 강조하는 비로자나佛 思想이 진전되어 나타났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명백해질 것이다.

앞에서 法水寺는 화엄종의 寺刹이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는 데 화엄종의 사찰에 사자와 코끼리를 탄 文殊와 普賢을 脇侍로 한 金剛界 마하비로자나佛이 安奉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히 「화엄경思想」의 진전이란 점에서만 처리해 버릴 수 없는 問題다. 原來는 密敎의 寺刹로 初建되었다가 後에 화엄종으로 變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화엄종이 密敎的인 儀式(마하비로자나佛)만을 받아들였을 뿐인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이것은 佛國寺에서와 마찬가지로 「密敎와 華嚴宗의 關係」라는 韓國 佛敎史의 커다란 研究課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